

# 중국 민영경제 현황 및 전망

2012. 5.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 - 目 次 -

I. 중국 민영경제 현황-----	1
II. 중국 민영경제의 문제점-----	8
III. 정부의 민영경제 부양책-----	10
IV. 향후 전망-----	12
<참고>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 관련 논의-----	14

# I. 중국 민영경제1) 현황

## 1. 중국 경제성장 기여

### □ 2011년 민영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 지속

- 2011년 제3분기까지 중국 전역에 등록된 사영(私營)기업2)은 900만 개를 넘어 전년 동기대비 14.9%, 자영업은 3600만 개를 넘어 전년 대비 8.5% 증가
- 사영기업 자본금 총액은 25조 위안에 가까워 전년 동기대비 38.6%, 자영업 자본금 총액은 1조 5000만 위안을 넘어 전년 대비 21.9% 성장 (표1, 표2 참조)
- 사영기업과 자영업자(个体工商户3)의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자본금 규모도 급성장 중. 기업 당 평균 자본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표1 사영기업 현황>

(단위: 만 개, 만 명)

년도	등록기업 수		자본금		투자자 수		종업원 수	
	(만 개)	(%)	(만 위안)	(%)	(만 명)	(%)	(만 명)	(%)
2005	430.1	17.8	61331.1	27.9	1109.9	17.0	5824.0	16.1
2006	498.1	15.8	76028.5	24.0	1271.7	14.6	6586.0	13.1
2007	551.3	10.7	93873.1	23.5	1396.5	9.8	7253.0	10.1
2008	657.4	19.2	117356.7	25.0	1507.4	7.9	7904.0	9.0
2009	740.2	12.6	146446.6	24.8	1650.6	9.5	8607.0	8.9
2010	845.5	14.2	192054.6	31.1	1794.0	8.7	9407.6	9.3

\* 자료출처: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 2008년 이후, 등록기업 수는 산하 기구 수 포함됨

- 1) 민영경제: 국유 및 국가지주기업(國家控股企業,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기업 외에 모든 경제형식. 주로 사영기업과 자영업(个体工商户)을 포함  
\*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이 차이 : 민영경제는 민간 부문 각종 경제성분 및 요소의 총칭. 민영기업은 민간부문의 일종의 기업형태이며 민영경제의 주력업. 민영기업 외에 일부 사회복지사업,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민영단체 및 조직도 민영 경제에 포함되어 있음
- 2) 사영기업: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거나 주주를 보유하며 노동력을 고용하는 영리 경제조직. <공사법(公司法)>, <파트너기업법(合伙企业法)>, <사영기업잠정조례(私營企業暫行條例)>에 따라 사영유한책임회사, 사영주식유한회사, 사영파트너기업과 사영투자기업이 포함됨
- 3) 자영업자(个体工商户): 경영능력이 있고 <개체공상호조례>에 의거, 공상행정관리 기구에 등록되며 상공업 경영을 하는 공민(개인). 사영기업은 법인이나 자영업자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 혹은 가정의 단위로 사업을 영위

<표2 자영업 현황>

(단위: 만 개, 만 명)

년도	등록자 수		자본금		종업원 수	
	(만 개)	(%)	(만 위안)	(%)	(만 명)	(%)
2005	2463.9	4.8	5809.5	14.9	4901.0	6.8
2006	2596.6	5.3	6468.8	11.3	5159.0	5.3
2007	2741.5	5.6	7350.8	13.6	5497.0	6.5
2008	2917.3	6.4	9006.0	22.5	5776.0	5.1
2009	3197.4	9.6	10856.6	20.6	6585.4	14.0
2010	3452.9	8.0	13387.6	23.3	7007.6	6.4

\* 자료출처: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 □ 민간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10월까지 내자 민영경제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가 14.2조에 달해 동기 대비 46.5% 증가 했으며, 도시 고정자산 투자 총액의 58.9%를 차지했음 (2010년 대비 7.8%p 상승)
  - 이 중 사영기업의 투자는 5.8조 위안에 달해 동기 대비 45.5% 성장했으며, 도시 고정자산 투자 총액의 24.0%를 차지 (표3, 표4 참조)
  - 2011년 1월-10월에 민간의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 부가가치 누계 증가율이 19.6% 달해, 국유 공업기업4)의 10.1%와 전체 공업기업의 평균 수준인 14.1% 보다 높음

4) 공업기업: industrial enterprise, 사회수요를 만족시켜 이윤을 획득하는 공업성 생산-경영활동 혹은 공업성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자율경영, 독립재산 및 법인자격을 가진 경제조직

<표3 경제유형별 도시 고정자산 투자 변화>

(단위: 억 위안, %)

년도	전국 총계	국유 및 국가지주 기업		외국인 투자 및 홍콩·대 만·마카오 투자기업		민영경제		개인주주 회사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05	75095.1	27.2	38676.1	13.4	8424.4	20.9	27994.4	55.8	9950.0	52.7
2006	93368.7	24.3	44823.9	15.9	9925.3	17.8	38619.5	38.0	33378.2	-
2007	117464.5	25.8	52229.4	16.5	12192.7	22.8	53042.4	37.3	46405.1	39.0
2008	148738.3	26.6	63997.8	22.5	14179.2	16.3	70561.3	33.0	60193.2	29.7
2009	194139.0	30.5	86536.0	35.2	14111.0	-0.5	93492.0	32.5	33610.0	34.9
2010	241414.9	24.5	102129.7	18.0	15832.9	12.2	123452.3	32.0	49910.6	32.2
2011 1-7	152419.9	25.4	52752.1	13.6	10000.0	25.1	89667.8	43.7	36976.7	32.2
2011 1-8	180607.6	25.0	62422.2	12.1	11698.8	25.3	106486.6	45.5	43664.9	32.8
2011 1-9	241365.1	24.9	83937.6	12.4	-	-	-	-	-	-
2011 11-10	241365.1	24.9	83937.6	12.4	15241.5	21.7	142186	46.5	57972.2	45.5

\* 출처 : 2005-2010년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와 2011년11월 <중국경제경기월보(中國經濟景气月報)>

\* 민영경제는 전국 총계에서 국유기업 및 외자기업을 뺀 규모

\*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인주주회사" 항목은 사영기업의 수치임

\* 2011년 각 월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표4 공업부가가치5) 증가율>

년도	공업 부가가치	국유 및 국 가지주 기업		자영업	주식회 사	외자 기업
		증가율	증가율			
2007.12	18.5	13.8	26.7	20.6	17.5	
2008.12	12.9	9.1	20.4	15.0	9.9	
2009.12	11.0	6.9	18.7	13.3	6.2	
2010.12	15.7	13.6	20.0	16.8	14.5	
2011.7	14.3	10.6	19.8	16.2	11.1	
2011.8	14.2	10.4	19.8	16.1	10.9	
2011.9	14.2	10.4	19.7	16.1	10.9	
2011.10	14.1	10.1	19.6	16.0	10.7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5) 공업부가가치: 공업기업이 일정 기간 안에 화폐형식으로 표현된 생산 활동의 최종성과임. 공업기업 총생산활동의 성과에는 생산과정 중 소모되거나 이동한 물질상품 및 임금가치를 제외한 금액임 이는 공업기업 생산과정 중 새롭게 증가한 가치임

□ 민영기업의 전국 수출량 대비 수출 점유율 뚜렷한 증가

- 2011년 1월~11월, 전국 민영기업 수출 총액이 57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33.3% 증가했으며, 전국 수출 총액의 1/3을 차지했음
- 2005년부터 수출 증가폭이 변동이 있지만 민영기업의 수출 비율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민영기업은 전통적 노동집약 상품 수출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음. 전기기계, 가전제품 및 첨단기술 제품 등 영역에서도 활발해짐
- 지역별로 보면, 중부지역의 민영기업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며,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민영기업은 해당 지역 수출의 주력이 됨
- 민영기업의 수출이 지속적인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속도의 하락세를 완화시킴

<표5 기업 유형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연도	총액	증가율	국유기업			외자기업			민영기업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2000	2492.0	--	1164.5	46.7	--	1194.4	47.9	--	133.2	5.3	--
2005	7620.0	--	1688.1	22.2	--	4442.1	58.3	--	1489.8	19.6	--
2006	9690.7	27.2	1913.5	19.7	13.3	5638.3	58.2	26.9	2139.0	22.1	43.6
2007	12180.2	25.7	2248.1	18.5	17.5	6955.2	57.1	23.4	2976.8	24.4	39.2
2008	14285.5	17.3	2572.3	18.0	17.5	6955.2	57.1	23.4	2976.8	24.4	39.2
2009	12016.6	-15.9	1909.9	15.9	-25.7	6722.3	55.9	-15.0	3384.4	28.2	-11.1
2010	15779.3	31.3	2343.6	14.9	22.7	8623.1	54.6	28.3	4812.7	30.5	42.2
2011. 1-11	--	21.1	---	14.1	14.6	---	52.5	16.1	---	33.4	33.3

출처: 중국상무부

## 2. 중국 구조조정(调结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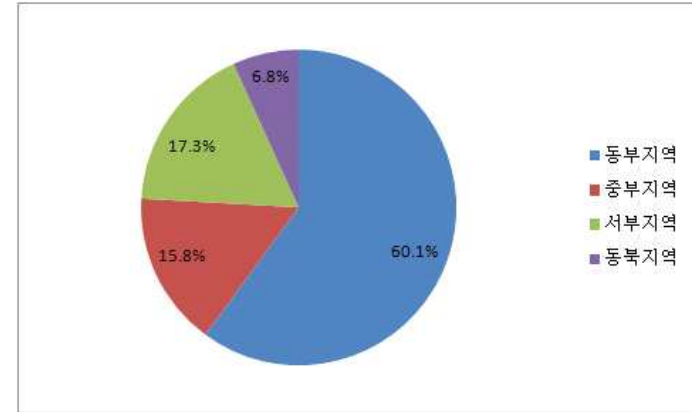
### □ 민영경제의 산업 분포 균형 추세

- 최근 3년간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영기업의 수와 자본금 증가 속도가 산업 전체 평균 속도보다 높음
- 2011년 3분기까지 3차 산업 민영기업은 650만 개 이상이 되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자본금은 16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체의 2/3 차지했음
-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 I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부문 사영기업의 증가폭이 소폭 하락했지만 자본금이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 업종의 사영기업이 안정 발전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
- 금융, 임대업, 서비스업 등 현대 서비스산업의 사영기업이 빠른 발전 속도를 유지하여 민영 3차 산업의 중요한 일부가 됨
- 문화, 체육 및 오락 부문 사영기업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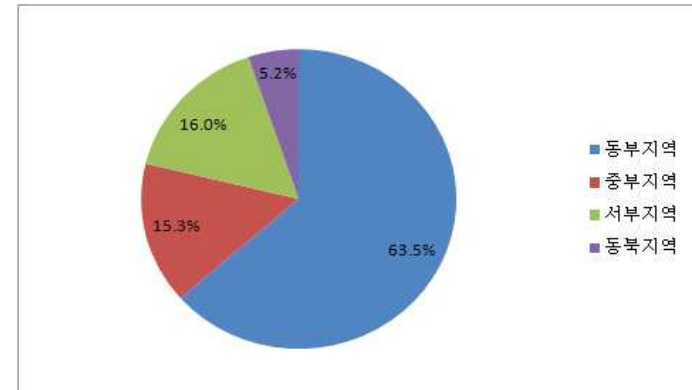
### □ 민영경제의 지역 분포 균형 추세

-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사영기업의 수 및 자본금의 비중이 우세를 유지하지만, 중·서부 지역의 민영기업이 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보임 (그림1, 그림2 참조)
- 2011년 9월까지 중부 지역 사영기업체 수는 2010년 말보다 13.1% 증가했고 자본금은 27.6% 증가했으며, 서부지역의 사영기업체 수는 13.8% 증가했고, 자본금은 35.4% 증가해 동부지역보다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음
- 성시별로 보면, 중부지역의 안휘(安徽), 호북(湖北), 하남(河南), 서부지역의 내몽고(内蒙古), 광서(广西), 중경(重庆), 칭하이(青海) 등 지역에서 최근 3년 사영기업 발전 속도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음

<그림1 2011년 3분기 사영기업 지역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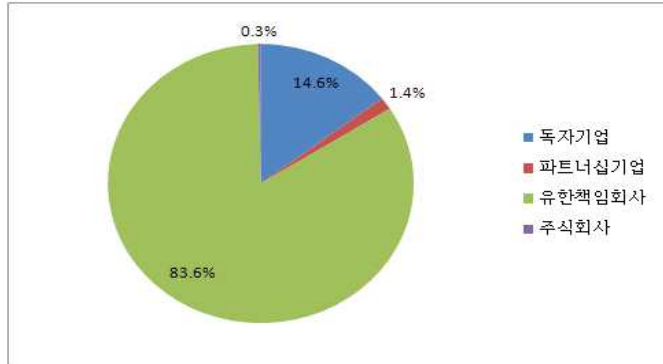
<그림2 2011년 3분기 사영기업 자금등록지 분포도>



### □ 민영경제의 조직형태 고도화, 기업 창의성 지속적 향상

- 2011년 3분기까지 독자기업이 780만 개를 넘어 증가율이 12%를 기록했음. 주식회사의 수는 2.6만 여개로 27.7%의 증가율을 기록했음 (그림3 참고)

<그림3 2011년 3분기 사영기업 유형별 분포도>



- 민영기업 상장회사의 성장속도는 강세를 유지
- 기술 혁신을 강화하여 일부 민영기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선진 기업으로 부상했음

### 3. 민생보장(保民生) 기여

#### □ 지속적으로 취업기회를 창출

- 2011년 민영경제가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창출하여 신규 증가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취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
  - 2011년 1~10월 중국은 총 1082개의 일자리를 늘렸는데, 그 중 사영기업의 일자리가 1-9월에 800여 개 창출됨
  - 민영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실업문제 완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원이 됨

#### □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

- 민영기업들이 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긴밀히 연결시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

#### □ 지방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민영기업들이 각종 대형 경제무역 촉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현지 경제 발전의 주력으로 부상

## II. 중국 민영경제의 문제점

### 1. 생산·운영 원가 급증

#### □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가격 대폭 상승

#### □ 노동력 원가 급증

- 2010년 중국 전국의 총 30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수준을 평균 22.8% 인상, 2011년 24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수준을 22% 이상

### 2. 세금부담 문제

#### □ 높은 세금 부담

- 과세품목이 많고, 일부 소형·미형기업<sup>6)</sup>들의 경우, 세금이 순이익 보다 높음. 일부 세목의 설치가 비합리적이며, 세금 중복 징수 문제 존재

#### □ 조세항목이 많음

-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행정적인 비용을 징수하는 정부기관이 18개나 되고 조세항목은 69개나 됨

#### □ 사회보험 부담이 큼

- 일부 성시의 5대 사회보험료는 월급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 그 중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30%를 초과

6) 중국의 <중소기업구분표준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형·소형·미형 3가지로 나눔. 구체적 구분 기준은 기업의 종업원 수, 영업수익, 자산총액 등 지표임. 공업의 경우, 종업원 1000인 이하 혹은 영업수입 4천만위안 이하의 기업은 중소기업임. 이 중 종업원 300인 이상, 영업수익 2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은 중형기업이며, 종업원 20인 이상, 영업수익 3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은 소형기업임. 종업원 20인 이하 혹은 영업수익 30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은 미형기업임

### 3. "융자난"(融資難)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함

- 중국 은행의 대출금은 90% 이상 대·중형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은 20% 뿐이며, 미형기업 대상의 대출금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소형 기업은 대출받기 어렵고 민간 융자의 비용도 높음

### 4.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기업들의 구인난 초래

- 동남 연안지역과 서부지역의 임금 격차 축소에 따라, 일반 구인 시 동남 연안지역이 서부지역보다 어려움
- 기술 인재 구인 시에는 대도시보다 소도시가 더 어려움
- 상당수의 민영기업이 경영, 관리제도, 기업문화 및 보상제도 등이 완비되지 못하여 직원들의 대량 이탈 초래

### 5. 민영기업 자체 역량 및 수준 향상 기대

- 핵심 경쟁력이 부족함. 중국 중소기업 제품의 부가가치율이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수 소형기업의 기술 및 장비가 낙후됨
- 경영·관리 문제 다수 존재.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인 경영·관리 지식, 과학적인 전략 및 시장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지속적 발전 능력이 없음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 평균 수명은 3.7년으로 유럽 및 일본의 12.5년, 미국의 8.2년과 큰 차이를 보임
- 제품 품질에 대한 성실성 부족. 가짜와 불량품이 많고, 위약행위가 빈발하여, 사회 전체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오해가 깊어짐

## III. 정부의 민영경제 부양책 제안

### □ 소형·미형기업 대상 광범위한 세금우대정책 실시

- 소형·미형기업의 소득세 삭감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으로 확립시켜 경제여건에 따라 연간 소득세의 기준을 정함
- 소형·미형기업의 부가가치세, 영업세 징수기준을 높임
- 대, 중, 소, 미형기업의 사회보험 차별화 정책 실행
- 민영기업에 대해 징수하는 불합리 세목 전면 취소
- 소형·미형기업의 산업구조 전환, 업그레йд 유도 등을 정부의 장기적 과제로 정하고, 기업은 기술혁신에 의존하여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킴

### □ 융자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 실시

- 소형·미형기업이 정상적 채널을 통해 자금을 사용하게 함
  - 상업은행들이 소형미형기업의 수요에 맞는 금융제품을 적극 개발하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 심사방식 개혁
  - 농촌·마을 은행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농촌 은행을 허용
- 소형·미형기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소규모 금융기구가 대출이자율을 낮추도록 유도

- 소형·미형기업의 신용조회체제를 확립하고, 세무, 은행, 해관 등 부처의 기업신용기록을 통합, 신용관리를 강화시키고 신용위험에 대비하게 함
- 은행과 담보대출회사가 동시에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는 체제의 확립을 가속화시킴

#### □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실물경제를 발전시킴

- o "민간투자36조"7)를 실행에 옮김
- o 일부 독점 업종 및 전략적 신흥 산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야 하며, 석유·철도·전력·텔레콤·군수산업·시정 공공시설 등 독점 영역의 개혁을 강화
- o "국가와 국민이 함께 발전한다(国民共进)"는 이념을 강조하여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고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의 융합을 촉진

#### □ 민영기업들의 저우추취(走出去)를 위한 환경 창출

- o 민영기업을 위한 법률 보장 강화, 중국 기업을 위한 "해외투자촉진법" 제정
- o 해외투자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o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제도 및 해외투자수입 세금감면 제도 구축
- o 해외투자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 □ 중화전국상공업자연합회 등 관련 협회의 충실한 기능 수행

7) <민간투자36조>: 《국무원,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의 약칭. 이는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0년 5월 7일 발표한 정책성 문헌

## IV. 향후 전망

### □ 정부의 각종 부양책으로 중소기업 발전 보장

- o <비공경제36조(非公经济36条)>, <중소기업29조(中小企业29条)>, <민간투자36조(民间投资36条)> 등 일련의 중소기업 부양책 실시
- o 공신부(工信部)는 <"12.5"중소기업성장계획> 발표

### □ "12.5"규획의 실시는 민영 중소기업에게 큰 발전가능성 부여

- o "12.5"규획 기간,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현대 농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조치들을 계획 중임. 이는 민영기업에게 유리한 발전여건을 창출
- o 일부 민영기업들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국제적 선도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 유리한 국제시장 환경이 민영기업 저우추취(走出去)의 계기가 됨

- o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며,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 및 제조업 등 분야의 해외 기업 인수를 지원
- o 유럽, 아세안, 동북아시아, 서아시아 등 국가들이 중국 기업의 자국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o 유럽계 기업 자산가격의 하락은 민영기업의 해외인수·합병을 위한 기회를 제공

- 레노버(联想), 지리(吉利) 등 일부 민영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인수·합병 활동이 중국 민영기업들의 국제적 영향을 확대, 민영기업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게 됨

□ 문화산업 적극 배양으로 민영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 문화산업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산업이 되었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
- 중국에서 문화·체육·오락에 종사하는 민영기업이 30만 개 있으며 전체 문화기업의 95.7%를 차지함. 2010년 중국 문화산업 부가가치가 1조1000억 위안을 넘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함. 따라서 문화산업은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참고>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 관련 논의

1. 차이나 2030

- 양회(兩會) 직전인 2월 27일, 세계은행(WB)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나 2030> 보고서를 내놓음
- 이 보고서는 차기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부총리의 승인 아래 작성된 것으로 향후 10년 간 중국 경제를 책임질 최고 지도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위한 6가지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1) 정부 기능 정비, 국유기업·국유은행 개혁 개편, 민영부문 발전, 경쟁촉진, 토지·노동력·금융시장 개혁 심화 등 시장경제 기초 강화
  - (2) 혁신의 가속화 및 개방적 혁신 시스템 구축
  - (3) 환경 문제 해결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녹색' 발전 추진
  - (4) 취업, 용자, 양질의 공공 서비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보장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보장혜택 제공
  - (5)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수지균형 및 건전화
  - (6) 다양한 시스템 및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고 중국과 세계의 공영 추구

2. <차이나 2030> 보고서 제3장 1절 "민영기업의 발전 및 국유기업 개혁" 부분 주요내용

-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 개황
  - 2003년부터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에는 국유기업 개편과 민영기업의 확대가 큰 역할을 했음. 많은 중소 국유기업이 민영화되었음



-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은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다양화시키고 대형 국유기업들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현재 대형 국유기업(양치<sup>8)</sup> 포함) 중 상당수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기업 관리의 전문성, 수익성은 향상되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비국유기업보다 낮음
-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핵심 분야에서의 경쟁을 통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략적" 산업에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이 더 많은 자본, 원자재 및 중간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의 점유율은 비교적 낮음
- 국유기업은 정부 및 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로 특수한 지위를 누리며, 이는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 및 혁신 요소를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시장경제 기초 구축에 장애가 됨
- 국유기업 개혁과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일부 국유기업은 재정관리의 비효율화, 불투명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 정부에서 시장 자극요인, 시장 동력 및 민영기업 진흥 등을 통한 경제발전 대신 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해 왔음.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 상이한 산업지원 정책을 시행, 정책시스템이 혼란해지고 결과 예측이 어려워짐
- 중국 정부는 국방, 전력, 석유석화, 전력통신, 석탄, 항공과 해상 운송 등 "7대 전략산업"과, 기계, 자동차, 통신기술, 건설, 철강, 기본금속과 화공 등 "기초" 혹은 "지주" 산업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영기업의 진입 및 경쟁을 억제했고, 이러한 정책은 민영산업의 성장 발전을 억제하고 생산력 성장을 둔화시킴

□ 개혁 과제

- 국유기업 소유권 확대·다양화
- 기업의 효율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
- 민영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권장 및 민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개방
- 제도적 뒷받침, 무역장벽 완화, 경쟁 및 혁신 자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전문가 의견

□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국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중국 국내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부의 집중을 야기한다고 주장해 왔음

- 이들은 또한 중국 정부과 국유기업이, 대형 국유기업들에 의한 국가주의적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기업가정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을 지향하는 것임

□ 국유기업 개혁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국유기업과 관련된 이익 집단이 많기 때문임

\* 중국 대형 국유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도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실정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8) 양치(央企),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감독·관리하의 국유기업